

심리학에서의 가족변인 동향고찰 및 향후연구 방향제시

김현정 · 김명소

이화여대 · 호서대

지금까지 심리학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면, 가족 문제는 정신분석 전통의 연구나 애착 연구에서와 같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거나, 기계론적 전통에 따라 가족 관계의 한 부분만을 주로 인과적인 분석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개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주요한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가족의 의미가 간과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심리학, 특히 발달 심리학의 학문 성격의 변화와 연결하여, 가족 연구가 심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와 현 위치, 그리고 이후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면서, 여성 문제에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덧붙여 이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예를 들어 가족 변인을 발달적 접근으로 다루는 것의 중요성과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성차변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인간은 출생 이후 자립할 수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보내게 되며, 개인의 전생애를 통해 가족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달 심리학 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의외이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주로 사회학습이론이나 정신분석 전통에서 부모-자녀 관계, 특히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문화와 가치 등을 형성시키

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간주되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이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 소홀히 다루어져왔고, 따라서 이 관계의 역동적인 측면이 진지하게 고찰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맥락주의, 생태주의, 시스템 이론 등의 등장과 함께 발달의 맥락 요인으로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발달 심리학에서 가족이라는 주제가 주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배경을 그동안의 발달심리학의 학문적 성격의 변천과 함께 간략히 짚어보면서, 앞으로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가족 문제를 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발달적 접근이 여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덧붙여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가족이라는 맥락 하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실증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1. 발달심리학 연구의 흐름

발달심리학의 학문적 뿌리는 19세기 진화론적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새로운 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출현하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 연결고리에는 적응성과 기능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진화론적 개념은 그 이전의 과학의 관심을 존재하는 것(being), 정지해 있는 것(stasis)으로부터, 되어가는 것(becoming), 변화하는 것(changes)으로 바꾸어 놓았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현재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을 이전 형태(or 현상)로부터, 그리고 미래 발달의 형태를 현재의 형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발달적 전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 다양한 철학적, 방법론적 배경에 따라 여러 형태의 발달 모델로 발전되었다.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주제가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위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달 심리학의 주요 이론적 전통에서 개인의 행동과 기능상의 변화가 어디서 기인된 것으로 이해했는가, 즉 변화의 원동력을 무엇으로 가정했는지의 주제와 관

련하여 고찰할 것이다.

1) 유기체론

19세기 동안 우세했던 유기체론은 개인의 내부에서 발달의 원동력을 찾고자 했다. Hall에서 Gesell로 이어지는 이 전통에서는 인간의 발달이 목적지향적이고 일방향적으로 질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힘은 유기체 자체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들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가정된 각 발달 단계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설명을 제공하여,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나 심리특성의 기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발달심리학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기술은 발달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에는 시사하는 바가 없고, 무엇보다 발달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그 초점을 유기체 내부에 국한시킴으로써, 가족과 같은 의미있는 환경이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주제는 이 전통의 심리학자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2) 정신분석이론

한편 정신분석학의 주창자인 Freud는 Hall과 더불어 진화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개체가 종의 역사를 재현한다면, 성의 역사도 재현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옮겨가는 순서가 종의 역사를 반복한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생애 초기 5년 정도의 시기가 이후 성격이나 정서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입장은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개인의

성격 발달에 주요한 형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도 기본적으로 변화의 원동력이 유기체 내부에서 기인된다는 생물학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어 환경이 개인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였다. 즉, 학령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심리적 문제가 초기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외상적 사건과 id, ego, superego의 정신 구조간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결과로 고려하여, 현재 환경적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지난 50년 동안 프로이드의 원래 모델에 대해 많은 수정이 있어 왔으나(소위 Neo-Freudian이라 불림), 그 모델의 주요 개념적 특성, 특히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개인과 내적 정신적 힘에 대한 강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가족 체계 접근(family system approach)

1950년대 중반 동안, 정신분열증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내담자 개인의 내적 심리적 과정에만 기초해서 비정상성을 개념화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신분열증을 발달,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가족 내의 작동 과정을 밝혀내고, 치료 과정에 전체 가족을 관련시켰다. 이런 일련의 연구로부터 가족치료 분야가 탄생하였고, 지난 40년 동안 가족 요법에 대한 수많은 접근들이 심리적 부적응의 다양한 형태를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Palo Alto에서 일하는 연구집단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족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패턴이 아동의 문제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고, 이후 가족 의사소통과 상

호작용 유형을 분석한 것을 다양한 정신병과 부적응의 치료로 확장시켰다(Peter & McMahon, 1988). 이런 접근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고, 연구의 초점을 개인에서 각 구성원들 간의 관계, 또는 가족 전체의 기능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주로 의사소통 기술과 유형의 분석에 관심을 제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역사적이고 발달적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3) 기계론

반면, 개인 변화의 원동력을 개인 외적 요소에서 찾고자 하는 접근으로 기계론적 관점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유기체가 기계와 유사하다고 보고, 개인의 발달 및 변화는 환경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기계론의 초기 입장인 고전적인 학습이론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심리학을 지배하면서, 신경증, 정신지체, 행동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문제의 치료에도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고, 북미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행동 수정이나 행동 치료가 정신분석학을 대치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북미심리학자들이 조건화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 할수록 그 모델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했다(Peter & McMahon, 1988).

첫째, 아동의 언어와 다른 인지 능력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이 모델이 설명하기 힘들었다. 1970년대 인지 혁명은 정서 발달과 관련된 주제를 발달심리 연구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으나, 사회 학습 원리와 문제 해결 등 인지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행동 수정과 행동 치료의 다양한 측면에 충분히 받아들여,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갈등과 같은 가족 문제의 분석과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 상호작용이 양방향적이거나 상호적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S-R학습 모델에 대한 주요한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유형의 부모 행동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연구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예: Sears, Maccoby, and Levin, 1957), Bell (1968), Patterson과 Reid (1970), 그리고 Thomas, Chess, 그리고 Birch (1968) 등은 선구자적으로, 아동 또한 부모가 사용하는 자녀-양육 방식이나 사회화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부모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제안하였다(Peter & McMahon, 1988 재인용). 부부간의 상호작용(Weiss, Hops, & Patterson, 1973)이나 또래 관계(예: Patterson, Littman, Bricker, 1967)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호성에 대한 결과가 유사하게 보고되었다(Peter & McMahon, 1988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족 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가 개념화되는 방식에서 수정을 가져왔다. 이 때 분석의 적절한 수준은 특정관계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상호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각 상호작용의 특성과 행동이 그 관계의 진행중인 성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셋째, 지난 20년동안 가족 기능에 관한 기계론적 입장의 연구들은 가족 외적 요소들, 특히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중요성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또래는 아동의 행동과 태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Hartup, 1980),

최근에는 성인 “또래” 관계가 어떻게 가족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Wahler등(1980)의 연구는 이 분야에서 특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아동이 행동 문제의 치료를 위해 의뢰되었을 때 아동 행동의 질 뿐 아니라 모자 관계의 질이 엄마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사회적 만남의 지각된 성격과 빈도와 함께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만족스러운 성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고립된 엄마(insular mother)와는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훨씬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변화 및 발달에는 환경이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드러나고, 이를 단순한 S-R 식의 인과론적 분석의 틀로는 설명해 낼 수 없음을 인식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게 되었다.

4) 맥락주의 전통의 이론

이에 실용주의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맥락주의적 발달 이론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 전통에서는 유기체나 환경 모두가 진화한다는 공진화론적 입장에 기초해, 개인 유기체와 사회 환경이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개인의 발달을 사회적 맥락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새로운 입장에서 다시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가족, 특히 부모는 문화의 전수자나 행동의 조성자로서가 아니라, 아동 개인에게 매우 근접한 환경으로서 지지와 제약을 제공하여 아동이 세상을 의미있게 구조화해 나가는데 의미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중요하다. Magnusson과 Stattin (1998)이

지적했듯이, 부모나 가족과 같은 환경 변인을 자극원(source of stimulant)으로서가 아니라,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으로 이해할 때, 개인 유기체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지각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일방향적인 인과모델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주로 어머니 혹은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 왔고, 양쪽 모두의 지각을 다루거나, 아버지의 관점을 포함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 이후 연구에서는 가족 연구시 상호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복잡한 것이어서, 개인과 환경이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기 보다는 통합적인 체계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가족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걸쳐 이들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거시 수준에서의 분석과 미시 수준에서의 분석 모두가 유용하다(자세한 내용은 Magnusson과 Stattin (1998)을 참고하시오).

또한 이 입장에서는 가족을 다른 사회, 문화적 제도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하면서 개인의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한다(Bronfenbrenner, 1979). 부모-아동 관계의 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그리고 맥락이나 관계의 요구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맞추어지기 때문에(황상민, 1998), 다양한 가족 외적 요소들은 개인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나 기능 수준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개인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ronfenbrenner의 견해가 발달 심리학에 가장 기여한 부분은 가족 연구를 보다 넓은 사회와

문화의 맥락 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시스템 관점에서 가족을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Cowan, Powell, & Cowan, 1998).

이상에서 발달심리학의 대략적인 역사와 함께 가족 연구의 위치를 검토해 보았는데, 가족이 개인의 기능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연구는 유기체 내부에서 발달의 원동력을 이해하려는 유기체론적 이론적 지향 때문에 초기 발달 심리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났고,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신분석적 전통에서도 초기 환경을 결정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현재 가족 관계의 역동적 영향력을 간과하였다. 한편 20세기 심리학의 지배적인 흐름이었던 기계론적 전통은 투입-산출식의 단순한 이론적 개념과 물리학에 기초한 인과적 실험심리 방법론을 강조함으로써, 상호적이고 복합적인 발달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가족 문제가 발달 심리학 연구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최근 개인과 환경의 상호적인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려는 발달적 맥락 이론, 생태학적 이론, 시스템 이론 등이 제안됨에 따라, 사회, 문화적 맥락 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이에 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발달 연구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발달적 접근은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여성 연구들이 성별(gender)이라는 집단 변인(group variable)으로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면, 새로운 접근의 틀에서는 여성이라는 집단적 개

념으로 설명하는데 제한적이었던 개인차 변인들을 그 개인이 속한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가족 문제를 발달의 주요한 맥락적 요인의 하나로서 간주하여,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발달 문제와 관련시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 문제의 분석

발달적 맥락주의 접근은 주요한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족이 개인의 심리적 기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사실상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보들의 광대함,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방법론의 미성숙 등으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인과론적인 단순한 이해의 틀로는 복잡한 발달 현상을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념적 분석의 틀을 어떻게 우리의 연구 속에서 소화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발달심리학의 주요한 과제이다. 여기서는, '이혼이 자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가족 문제를 발달맥락적인 이해의 틀에 기초하여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다 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자녀의 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흔히 생각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여성의 심리적 부산물과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사실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혼이라는 공통된 경험 뒤에, 각 아동의 성, 연령, 성격, 지능, 정서적 독립성, 성숙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간 특성(부모의 부부 관계, 혹은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정서적 지지자, 경제적 안정성, 직장 등)이 개인마다 다르고, 또한 이혼에 이르는 과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변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는 패턴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변인들 중 일부만을 살펴보거나, 여러 변인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 관계, 사회문화적 수준의 세 부분으로 분석의 수준을 나누어 검토한 후, 이들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1) 개인적 수준

우선 아동 관련 특성으로, 내적 통제 소재, 우수한 지능, 쉬운 기질 등이 이혼에 따른 적응 과정에 있어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아동의 성(gender)과 연령은 이혼에 따른 적응과 관련해 특히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에 대해 더 적응이 어렵고, 남아가 여아보다 이혼에 따른 부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

로 밝혀져 있다. 부적응 행동의 양상에 있어서도 남이는 주로 외현화 행동으로, 여아는 주로 내재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이는데, 이혼을 경험한 영유아기의 남이는 공격성과 과잉의존성을 보이고 청년기 이후까지 더 불복종적이고, 공격적이며 더 비행과 많이 관련된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이후 청년기에 와서 성적으로 조숙하거나, 성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부모의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도 아동의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19세이고, 자녀가 각각 2세, 1세인 가족은, 부모가 45세이고 자녀가 18세, 16세인 가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발달적 특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계적 수준

가족에는 부부 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 관계, 형제 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한 개인의 기능 수준은 사실상 개인적 수준에서의 요인들보다는 관계적 수준에서의 요인들에 의해 매개된다. 즉, 부부간의 갈등 수준(극단적인 경우는 폭력), 자녀의 양육 태도, 형제 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혼의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부부 관계: 갈등

Hetherington(1999)은 3개의 대규모 종단적 연구들(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Hetherington, 1993;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 Reiss et al.

1994)을 검토하면서, 부부 관계에서 높은 갈등 수준에 있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후 '고갈등 비이혼가정'으로 지칭)과 이혼에 이른 가정에서의 자녀 적응을 비교했는데(Hetherington, 1999), 부부가 서로에게 화내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해결되지 않는 결혼 갈등에 자녀가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은, 자녀들의 높은 정서적 각성수준, 부정적 정서, 그리고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로 이끄는 강력한 위험요인이었다. 물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부부 갈등에 똑같이 취약한 것은 아니고, 모든 유형의 부부 갈등이 똑같이 아동의 적응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아동 개인내 변인, 즉 기질, 지능, 연령이나 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좀더 나이는 자녀는 어린 아동에 비해 부모의 결혼 갈등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신체적 공격성을 포함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도 나타낸다. 또한 성차도 발견할 수 있어서, 딸은 부모의 갈등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더 많고, 아들은 갈등으로부터 철회하는 경향이 많지만, 청소년기 남아들은 신체적 위협이 관련될 때 보다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들이 결혼갈등과 문제를 성공적으로 타협하고 해결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정서를 통제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이 자녀의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 내 부부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관계: 양육

일반적으로 양육 유형과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은 가족구조, 인종, 사회계층에 관계 없이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과 관련되나, 방임적 양육(neglectful parenting)은 부모가 자녀에게 거의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고통과 일탈, 낮은 자존감과 학업 성취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도 대체로 심리적 고통, 낮은 자존감과 학업 성취와 관련되고, 허용적 양육(permissive parenting)은, 권위주의적 양육에 비해서는 보다 적응적인 청년기 발달에 관련되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양육에 비해 훨씬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venevoli, Sessa, & Steinberg, 1999). 그러나 이들 양육 유형과 자녀 적응간의 관계도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egarmo & Forgatch, 1999). 비이혼 가정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방식의 양육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양부모 가정과 홀부모 가정간의 양육 스타일에서의 차이가 적고, 단 홀부모는 양육에서의 감소, 특히 행동적 통제나 제한설정과 관련된 행동의 감소를 보이는 것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Hetherington, 1999).

관계 간 분석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부부 관계가 자녀 적응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거의 없거나 적고, 대부분 부모 양육의 질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가 높은 수준의 따뜻함과 반응성, 의사소통과 감독을 포함하는 권위적인 양육을 한다면, 결혼 갈등의 효과는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비이혼 가정에서 결혼 갈등의 부적인 효과에 대한 부모 양육의 보호 효과는, 양부모가 모두 권위적인 양육을 할 경우 가장 크지만, 한쪽 부모만이 권위적인 양육을 할 때도 그 효과가 있다. 더욱이, 높은 갈등 상황에서 비이혼 가정의 경우 여아는 권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보호 효과를 가지지만 남아에게는 그런 보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Hetherington, 1999).

또한, 가족 내 관계 뿐 아니라 가족 외의 관계들도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강력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양육의 효과가 상당부분 또래 집단에 의해 매개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venevoli, Sessa, & Steinberg, 1999).

3) 사회 문화적 수준

사회 문화적 요인은 상위 수준에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이혼에 따른 가정의 수입 감소(특히 어머니가 가장이고 아버지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와 주거 지역과 이웃의 변화(특히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으로의 이사)와 같이 이혼 자녀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생 변인도 있고, 아동이 직면한 삶의 스트레스성 사건(stressful life events)의 수의 증가와 부모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외생 변인에 따른 결과적 변인도 포함된다(Deater-Deckard & Dunn, 1999). 또한 인종이나 가치 체계 등에 따라 이혼을 얼마나 수용하는가 양육 태도 등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데

(Avenevoli, Sessa, & Steinberg, 1999), 개인이 속한 사회가 이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이혼한 개인은 낙인(stigma)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이혼 후 부모 뿐 아니라 자녀는 주위 환경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4) 시간

시간은 발달심리학 연구의 기본 질문에 기초를 형성하는 변인이다. 발달심리학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개인이(여러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그 변화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앞서 이혼이라는 사건 이후 자녀의 적응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변인들을 살펴보았으나, 발달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시간적, 맥락적 변화에 따른 적응성, 연속성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을 실시해야 함을 제안한다.

우선, 부부 관계의 갈등 수준은 대부분의 쌍둥이에서 이혼 후 감소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녀가 있는 이혼한 부부의 15-20%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전환기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 유지한다. 아동의 거주, 방문, 경제적 지지, 재산 분할, 부모의 책임과 권리 등을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을 때 이혼 후에 갈등이 오히려 증가되기도 한다.

Maccoby와 Mnookin(1992)는 이혼한 집단, 이혼은 안했으나 고갈등 집단, 이혼 안하고 중저갈등 집단에 해당되는 10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 갈등의 정도는 중저갈등 비이혼 집단, 이혼 집단, 고갈등 비이혼 집단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하게 고갈등 비이혼

집단의 자녀들이 이혼 집단보다 외현화, 내재화 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혼한 경우보다 이혼하지 않고 갈등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문제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 양육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 고갈등 비이혼 집단에서 부적절한 양육을 가장 많이 보였다. 단,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부모 모두 남아보다는 여아 행동을 더 감독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는 딸보다는 아들과 더 갈등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아버지는 고갈등 상황에서 아들보다는 딸에게 덜 따뜻하고, 더 부정적인 양육을 보였다. 또한, 이런 경향은 청년기보다 더 어린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Hetherington(1999)은 이혼한 가정의 갈등 수준을 고저로 나누어 고갈등 비이혼, 저갈등 비이혼, 고갈등 이혼, 저갈등 이혼의 4집단을 구성하고, 또한 이혼 후 2년 내의 가정과 2년 이상이 지나 재안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혼 후 2년 이내 경우, 여아는 부부의 갈등 수준에 관계없이, 이혼 그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남아의 경우 고갈등 이혼 집단에서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아는 이혼과 가정의 갈등 수준 모두에 의해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혼 후 2년 이상의 경우에는, 갈등이 많은 것이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혼 가정의 고갈등이 비이혼 가정의 고갈등보다 남여아 모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여아는 저갈등 이혼가정과 저갈등 비이혼 가정에서

비슷한 적용정도를 보였으나, 남이는 저갈등 비이혼 가정에 비해 저갈등 이혼 가정에서 훨씬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도 이혼보다는 빠져대는 양부모 가정으로 남는 게 남아에게는 더 보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조화로운 가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했을 때는, 이혼이 고갈등 비이혼보다 남녀아 모두에게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혼을 통해 높은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남녀아 모두에게 낫지만, 높은 갈등이 이혼에 관계 없이 계속 유지될 경우는 비이혼 상태가 이혼상태보다는 문제가 덜한 것으로- 특히 남아에게는-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 관계적 수준, 맥락적 수준의 여러 변인들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현재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이혼 후의 아동의 적용 수준은, 시간적으로 이혼 이전의 개인적, 관계적 수준의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변인들이 이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 이후의 맥락에 따라 다시 변화됨으로써, 아동의 적용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체 분석 수준과 일련의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심리학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면, 가족 문제는 정신분석 전통의 연구나 애착 연구에서와 같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거나, 기계론적 전통에 따라 가족

관계의 한 부분만을 주로 인과적인 분석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개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주요한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가족의 의미가 간과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먼저, 발달심리학의 학문 성격의 변화와 연결하여, 가족 연구가 발달 심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와 현 위치, 그리고 이후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해 여성적 이슈를 '여성'이라는 집단 변인으로 다룰 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예들을 통하여 '이혼이 여성에게, 혹은 자녀에게 불리한 결정이다'는 식의 믿음은 실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이혼에 따른 아동의 기능 수준에 아동 개인 요인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등의 복잡한 관계의 세트가 관련되고, 이들은 또한 다양한 가족 내외의 측면들과 관련되며, 서로 상호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확실히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고, 가족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문제를 발달 연구에서 다룬다는 것이 너무 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들을 다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인과론적 사고의 틀을 벗고, 연구자가 현상을 통제하려고 기대하기 보다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희망은 있다.

다양한 분석 수준에서 개인의 문제를 평가하고, 그 변인들 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문제가 어

떠난 분석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수준의 변인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수준의 문제가 다른 수준의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고, 이 때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여러 변인들이 어떻게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관찰한다. 이를 위해서, 잘 설계된 종단적 연구가 바람직하며, 실제 활용측면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여러 수준에 걸쳐 사용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인가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발달적 개입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발달적 접근은, '여성', '남성'이라는 분류의 틀을 벗어나, 개인이 그가 처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성별(gender)의 구조자로서 기능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적 산물을 동시에 설명하는데 새로운 개념적, 분석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황상민(1998). 발달정신병리의 심리학적 접근법: 소아정신과와의 개념적 차이. 발달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
- Avenevoli, S., Sessa, F. M., & Steinberg, L. (1999). Family structure,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examinatio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pp.65-9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wan, P. A., Powell, D., & Cowan, C. P. (1998). Parenting interven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In W. Damon, I. E. Sigel, and K.A. Renninger (Eds.),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3-72). NY: Wiley.
- Deater-Deckard, K., & Dunn, J. (1999). Multiple risks and adjustment in young children growing up in different family settings: A British community study of stepparent, single mother, and nondivorced families.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pp.47-6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garmo, D. S., & Forgatch, M. S. (1999). Contexts as Predictors of Changing Maternal Parenting Practices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A Social Interactional Perspective of Risk and Resilience.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pp. 227-2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rup, W. (1980). Peer relations and family relations: Two social worlds. In M. Rutter (Ed.), *Scientific foundations of developmental psychiatry*. London: Heinemann Medical Book.
- Hetherington, E. M. (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pp. 93-116).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ccoby, E. E., & Mnookin, R. H. (1992). *Dividing the child: Social and legal dilemmas of custo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Magnusson, D., & Stattin, H. (1998). Person-Context Interaction Theories. In W. Damon, I. E., Sigel, and K. A. Renninger (Eds.),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3-72). NY: Wiley.
- Peter, R. D., & McMahon, R. J. (1988). Converging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In R. D. Peter, & R. J. McMahon (Eds.), *Social Learning and Systems Approaches to Marriage and the Family* (pp.3-14). NY: Brunner/Mazel.
- Wahler, R. G. (1980). The insular mother: Her problems in parent-child treatment.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3, 207-219.

Review on the Family Variable in Psychological Researches and Suggestion of Future Research Direction in Developmental Contextualism

Hyun-Jung Kim · Myoung-So Kim

Ewha Womans University · Hoseo University

Research on "family" was not a main topic in developmental psychology, though there are some efforts to consider the parental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For example, psychoanalytic tradi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arly experiences with caregivers or early mechanistic tradition favored unidirectional causal model considering only a part of the family relationships. These traditional approaches to family issues have underestimated the dynamic aspects of continuous interactions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functioning of the family as a totality which is related to the other social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d (1), why we have neglected the family issues in psychology while reviewing some major tradition of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2) what we can learn from the studies of family issues based on developmental contextualism, suggesting the directions and the analytic strategies of the further research, and (3) what kind of implications and issues we can find on "woman" or "gender differences" in this process. Some empirical studies on divorce were presented to show how we have to deal with the family, as a main developmental context, and gender differences for explaining the current functioning of the individual and the changes over time.

Key words: family, developmental contextualism, gender differences.